

# CoMPAS16

## LG아트센터 2016년 기획공연 시즌

- 필립 글래스의 필름 오페라 <미녀와 야수>
- 니하이 씨어터, 뮤지컬 <데드 독>
- 샤우뷔네 베를린 & 토마스 오스터마이어 연출 <민중의 적>
- 알렉상드르 타로 '골드베르크 변주곡'
- 댄스 엘라지 2016
- 매튜 본의 댄스 뮤지컬 <잠자는 숲속의 미녀>
- 타이거 릴리스 & 덴마크 리퍼블리크 씨어터, 음악극 <햄릿>
- 조슈아 레드먼 & 브래드 멜다우 듀오
- 장우재 연출 신작
- 필립 드쿠플레의 프렌치 카바레 <콘택트>
- 타펠무지크 바로크 오케스트라 '창작의 세계'
- 피에르 로랑 에마르 '쿠르탁 & 메시앙'



## LG아트센터 기획공연 시즌

## CoMPAS16

2016. 3. 22  
— 11. 24

### > 2016년 상반기

**3.22~23** 8pm

필립 글래스의 필름 오페라 <미녀와 야수>

R 100,000 / S 80,000 / A 60,000 / B 40,000

#장 콥토 #라이브 연주 #해변의 아인슈타인  
#캣씨 3부작 #미니멀리즘 #흑백영화

**4.21~24** 평일 8pm | 주말 2:30pm & 7:30pm

니하이 씨어터, 뮤지컬 <데드 독>

R 80,000 / S 60,000 / A 40,000

#영국 #베가의 오페라 #거지 오페라 #오리지널  
#서푼짜리 오페라 #첫 내한 #편치 앤 주디

**5.26~28** 평일 8pm | 토 3pm

샤우뷔네 베를린 &  
토마스 오스터마이어 연출 <민중의 적>

R 80,000 / S 60,000 / A 40,000

#독일 #인형의 집-노라 #입센 #햄릿 #토론  
#다수 vs 소수

**6.8** 8pm

알렉상드르 타로 '골드베르크 변주곡'

R 80,000 / S 60,000 / A 40,000

#바흐 #피아노 솔로 #988 #영화 '아무르'  
#타로 현상 #불면증 #하프시코드 #신보

**6.11-12**

댄스 엘라지 2016

#경연 #페아트르 드 라 빌 #파리 #서울  
#신개념 무용대회

**6.22~7.3** 화-금 8pm +23(목) 3pm & 8pm  
주말 2:30pm & 7:30pm

매튜 본의 댄스 뮤지컬 <잠자는 숲속의 미녀>

VIP 130,000 / R 100,000 / S 80,000  
A 60,000 / B 40,000

#영국 #백조의 호수 #뱀파이어 #8주 매진  
#오로라 공주 #차이코프스키 #트와일라잇  
#고딕 로맨스 #새들러스 웰즈 #호두까기인형  
#가위손 #3대 발레

### > 2016년 하반기

**10.12~14** 8pm

타이거 릴리스 & 리퍼블리크 씨어터  
음악극 <햄릿>

R 80,000 / S 60,000 / A 40,000

#세익스피어 서거 400주년 #영국 #덴마크 왕자  
#아크로바틱 #올리비에 상 #컬트 밴드  
#늪은 뱃사람의 노래 #오필리아

**10.15** 7pm

조슈아 레드먼 & 브래드 멜다우 듀오

R 100,000 / S 80,000 / A 60,000 / B 40,000

#색소폰 #피아노 #재즈 #영 라이언  
#델로니어스 몽크 컴피티션 #뉴욕

**10.26~11.6** 화-금 8pm | 토 3pm | 일 5pm

장우재 연출 신작

R 50,000 / S 40,000 / A 30,000

#국내 연극 #작가 겸 연출 #햇빛 샤워  
#여기가 집이다 #환도열차 #제작

**11.11~13** 금 8pm | 토 7pm | 일 3pm

필립 드쿠플레의 프렌치 카바레 <콘택트>

R 80,000 / S 60,000 / A 40,000

#프랑스 #카바레 #알베르빌 동계올림픽  
#크레이지 호스 #파노라마 #태양의 서커스  
#파우스트 #피나 바우쉬 #댄스 씨어터 #뮤지컬  
#비주얼 코미디

**11.20** 7pm

타펠무지크 바로크 오케스트라  
'창작의 세계'

R 80,000 / S 60,000 / A 40,000

#바흐 #라이프치히 #암보 #18세기 #캐나다  
#내레이션 #관현악모음곡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11.24** 8pm

피에르 로랑 에마르 '쿠르탁 & 메시앙'

R 80,000 / S 60,000 / A 40,000

#현대음악 #스페셜리스트 #스베일링크 #슈만  
#새의 카탈로그 #다캥 #쇼팽 #엔테르콩탱포랭  
#영화 '피아노 매니아' #리게티 #볼레즈

# CoMPAS16 패키지

가벼워진 주머니를 목직함 감동으로 채워줄  
LG아트센터 2016년 기획공연 패키지  
CoMPAS16 패키지

## 구입 전에 알아둘 점!

- 모든 패키지는 동일 좌석 등급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단, R석 패키지의 경우 VIP석을 상향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각 패키지별 구매 가능 기간이 다르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구입하신 패키지의 첫 공연 시작일부터는 취소 및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단, 구매한 공연의 날짜 및 동일 등급으로의 좌석 변경은 가능합니다.

## 패키지를 구입하면 좋은 점!

- 패키지를 구매하신 관객께는 '패키지 카드'를 발급해 드립니다.
- '패키지 카드'를 제시하시면, LG아트센터 메인 로비 카페에서 10% 할인 가능합니다.
- 패키지로 구매하신 공연 중 총 2매까지 '패키지 동반 할인' 20%를 적용 받아 동반인 좌석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 문의 및 예매

- www.lgart.com
- 매표소 운영 시간:  
평일 9am - 6pm (주말, 공휴일 휴무)
- Tel. 02-2005-0114
- Fax. 02-2005-1538
- E-mail. arts2005@lgart.com

# LG아트센터 개관 이래 가장 파격적이고, 가장 경제적인 패키지가 떴다!

LG아트센터의 기획공연을 가리지 않고 모두 관람하는 '궁극의' 관객을 위한 패키지  
개관 이후 유래 없는 '궁극의' 할인율을 선사하는 '궁극의 패키지' 출시!

## > 궁극의 패키지

- 11편 전체 선택 시: **50% 할인!**
- 예매 기간: **2016.1.19(화)~2.29(월)**

2016년 기획공연 11편 모두 관람 시 동일 좌석등급으로 구매 가능하며,  
동일 공연의 중복 선택은 불가능합니다. 단, R석 패키지는 VIP석으로 상향 선택 가능합니다.

### TIP

평소 CoMPAS 자유 패키지 7개 이상 봤던 관객, '궁극의' 할인을 계기로  
취향을 넓혀 보고픈 관객, 2016년을 엄선된 공연들로 꼭 채워보고픈 관객,  
마지막으로 LG아트센터를 믿고 보는 관객에게 적극 추천!

R (매튜 본 VIP 선택 시) 940,000 ▶ **470,000**      R 910,000 ▶ **455,000**  
S 700,000 ▶ **350,000**                      A 490,000 ▶ **245,000**

내 공연은 내 맘대로 골라본다! 매년 가장 많은 관객들이 선택하는, 가장 인기 있는 패키지

## > 자유 패키지

- 7편 이상 선택 시: **33% 할인!**
- 예매 기간: **2016.1.19(화)~6.21(화)**

- 5편 이상 선택 시: **22% 할인!**
- 예매 기간: **2016.1.19(화)~10.14(금)**

2016년 모든 기획공연 대상,  
동일 좌석등급으로 구매 가능하며,  
동일 공연의 중복 선택은 불가능합니다.  
단, R석 패키지는 VIP석으로 상향 선택 가능합니다.

### TIP

연극/무용 공연은 보는데 맘에 드는 클래식 공연을 몇 편 더하고 싶은 관객,  
클래식 음악에 무용이나 재즈 공연을 더해보고 싶은 관객,  
장르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취향의 흐름을 따라 원하는 공연을  
골라보고 싶은 관객에게 적극 추천!

# 패키지 티켓 오픈: 2016년 1월 19일(화) 오전 9시부터



연극과 무용 어느 장르에 고정될 수 없는 나의 브로-드한 취향을 저격한 패키지

## > 더블 패키지

- 6편 전체 선택 시: **30% 할인!**
- 예매 기간: **2016.1.19(화)~4.20(수)**

4.21(목)-24(일)	니하이 씨어터, 뮤지컬 <데드 독>
5.26(목)-28(토)	샤우뷔네 베를린 & 토마스 오스터마이어 연출 <민중의 적>
6.22(수)-7.3(일)	매튜 본의 댄스 뮤지컬 <잠자는 숲속의 미녀>
10.12(수)-14(금)	타이거 릴리스 음악극 <햄릿>
10.26(수)-11.6(일)	장우재 연출 신작
11.11(금)-13(일)	필립 드쿠플레의 프렌치 카바레 <콘택트>

R (매튜 본 VIP 선택 시) 500,000 ▶ **350,000**      R 470,000 ▶ **329,000**  
S 360,000 ▶ **252,000**                      A 250,000 ▶ **175,000**

2016년 기획공연의 대세는 '뮤직 씨어터'! 대세를 따르는 트렌디한 관객을 위한 패키지

## > 뮤직 씨어터 패키지

- 5편 전체 선택 시: **25% 할인!**
- 예매 기간: **2016.1.19(화)~3.21(월)**

3.22(화)-23(수)	필립 글래스의 필름 오페라 <미녀와 야수>
4.21(목)-24(일)	니하이 씨어터, 뮤지컬 <데드 독>
6.22(수)-7.3(일)	매튜 본의 댄스 뮤지컬 <잠자는 숲속의 미녀>
10.12(수)-14(금)	타이거 릴리스 음악극 <햄릿>
11.11(금)-13(일)	필립 드쿠플레의 프렌치 카바레 <콘택트>

R (매튜 본 VIP 선택 시) 470,000 ▶ **352,500**      R 440,000 ▶ **330,000**  
S 340,000 ▶ **255,000**                      A 240,000 ▶ **180,000**

대사가 없는 공연은 어쩐지 좀 허전한,  
텍스트를 곁집는 재미를 느끼고 싶은 관객들을 위한 패키지

## > 씨어터 패키지

- 4편 전체 선택 시: **25% 할인!**
- 예매 기간: **2016.1.19(화)~4.20(수)**

4.21(목)-24(일)	니하이 씨어터, 뮤지컬 <데드 독>
5.26(목)-28(토)	샤우뷔네 베를린 & 토마스 오스터마이어 연출 <민중의 적>
10.12(수)-14(금)	타이거 릴리스 음악극 <햄릿>
10.26(수)-11.6(일)	장우재 연출 신작

R 290,000 ▶ 217,500   S 220,000 ▶ 165,000   A 150,000 ▶ 112,500

고전부터 현대까지 넓은 취향의 클래식 음악을 사랑하는  
열린 마음과 열린 귀를 가진 클래식 애호가들을 위한 패키지

## > 클래식 패키지

- 4편 전체 선택 시: **25% 할인!**
- 예매 기간: **2016.1.19(화)~3.21(월)**

3.22(화)-23(수)	필립 글래스의 필름 오페라 <미녀와 야수>
6.8(수)	알렉산드르 타로 '바흐 골드베르크'
11.20(일)	타펠무지크 바로크 오케스트라 '창작의 세계'
11.24(목)	피에르 로랑 에마르 '쿠르탁 & 메시앙'

R 340,000 ▶ 255,000   S 260,000 ▶ 195,000   A 180,000 ▶ 135,000



LG아트센터  
2016년  
기획공연 시즌

# CoMPAS16 할인 안내

LG아트센터 기획공연은 패키지가 진리!

## > CoMPAS16 패키지

2016.1.19(화)~각 패키지별 예매 마감까지

국내 최초로 시작한 LG아트센터의 시즌 패키지!  
최초답게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감동으로  
지금껏 누릴 수 없었던 특별함을 선사합니다.

- 최대 50% 할인 '궁극의 패키지' 출시
- 패키지 카드 발급
- 패키지 카드 제시 시, 메인 로비 카페 10% 할인
- 동행인 할인: 패키지 구성 공연 중 1인 총 2매까지 20% 할인 제공

홀어지면 비싸고, 몽치면 싸다!

## > 몽싸 할인

2016.1.26(화)~각 공연별 선착순 마감까지

- <데드 독>, <잠자는 숲속의 미녀>, <햄릿>, 장우재 연출 신작, <콘택트> 공연의 동일 회차 R석 4매 이상 구매 시 25% 할인 (공연별 회당 선착순 100매)

예술적 영감을 원하는 전문가들을 위한

## > 공연예술전문가 할인

2016.1.26(화)~각 공연별 예매 마감까지

- 공연예술분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각 공연별, 소속 장르별 맞춤 할인 적용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MY LG아트센터' > '공연예술전문가 등록' 메뉴 참고

빨리 잡은 좌석이 보기도 좋다!

## > 조기예매 할인

2016.1.26(화)~2.29(월)

- 2월 29일까지 개별 공연 조기예매 시 15% 할인 (할인 종료 시점까지)
- 단, 신한카드 결제자는 조기예매 시 20% 할인 (공연별 선착순 200매)

젊음을 누리라!

## > 청년 할인

2016.1.26(화)~각 공연별 예매 마감까지

- 198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본인 1매 할인
- A, B석 30% / R, S석 20% 할인
- 티켓 수령 시 '신분증' 현장 확인(미지참 시 차액 지불)

기획공연 상시 할인은 신한카드 뿐!

## > 신한카드 10% 할인

2016.1.26(화)~각 공연별 예매 마감까지

- 모든 신한카드로 기획공연 예매 시 10% 할인 제공

※ 모든 할인은 중복 및 소급 적용이 불가하며, 상기 할인은 LG아트센터 2016년 기획공연 시즌 'CoMPAS16'에만 해당합니다.

LG아트센터는  
비영리공익법인 LG연암문화재단이  
LG그룹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공연장이며,  
LG를 대표하는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다양한 예술적 가치와  
시도를 존중하는 LG아트센터는  
2000년 개관 이래 우리의 공간이  
창의력과 열정을 자랑하는 예술가들과  
그들의 예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관객들이 만나  
자유롭게 소통하는 곳이 되도록 힘써 왔습니다.

동시대를 살면서 우리 관객들이 놓쳐서는 안 될  
세계 최고 수준의 작품들을 소개하는 것을 목표로  
LG아트센터는 예술가들과  
관객들 모두에게 놀라운 영감을 주고,  
언제나 믿고 다시 찾을 수 있는 공연장이 되고자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 우리의 믿음

### 소통의 공간

LG아트센터는 우리 시대의  
다양한 예술적 가치와 시도를 존중하며,  
우리의 공간이 창의와 열정을 자랑하는 예술가들과  
그들의 예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관객들이 만나  
자유롭게 소통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 최고의 공연

LG아트센터는 우리의 관객들이  
항상 최고의 공연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장르에 걸쳐  
세계적인 트렌드를 이루는 공연예술은 물론,  
혁신적이고 참신한 시도의 작품들도 선보임으로써  
관객들에게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즐거움과  
새롭고 깊은 감동을 선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최고의 무대와 관객

LG아트센터는 예술가들 또한  
최고의 무대와 관객을 만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에 우리는 그들이 예술적 완성도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상의 무대 시설과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필립 글래스는 음악이 스크린 속 이미지를 뒷받침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음악만으로도 이야기를 따라갈 수 있도록 무게중심을 뒤바꿔 놓았다.”

LA 타임즈

“양상블과 영화를 위한 오페라라니...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형식의 오페라”  
르 몽드



CLASSICAL  
MUSIC  
THEATRE  
DANCE  
MUSICAL  
JAZZ

VIDEO  
CLIP 

## 필립 글래스의 필름 오페라 〈미녀와 야수〉

### ‘La Belle et la Bête(Beauty and the Beast)’

music by Philip Glass, film by Jean Cocteau

3.22 tue  
—23 wed

8pm

R 100,000  
S 80,000  
A 60,000  
B 40,000

연주: 필립 글래스 앙상블  
지휘: 마이클 리스만

공연시간: 90분(휴식 없음)



### 두 천재 예술가 필립 글래스와 장 콕토의 만남, 영화에 라이브 연주를 입힌다!

심포니, 현악4중주 등 전통적인 클래식 장르 외에도 아카데미상 수상의 <디 아워스(The Hours)>, <트루먼쇼(The Truman Show)>, 박찬욱 감독의 <스토커(Stoker)> 등과 영상에 소리를 입히는 프로젝트의 시작이 되었던 ‘캣씨(qatsi)’ 시리즈에 이르기까지 필립 글래스는 20세기에 탄생한 ‘영화’라는 대중예술에 심취하여 영상과 음악의 혁신적인 결합을 시도해왔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시도 중 최고 걸작으로 평가받는 작품이 바로 장 콕토(Jean Cocteau, 1889-1963)의 1946년 흑백 고전영화 <미녀와 야수>를 필름 오페라로 만든 것이다. 글래스는 대사와 음악을 포함한 장 콕토 영화의 모든 사운드를 제거하고 자신의 미니멀리즘 음악을 새롭게 영화에 입혀 마치 흑백 오페라를 라이브로 보는 듯한 독특한 공연 관람의 세계를 열어 보였다.

시인이자 극작가, 소설가, 영화감독, 조각가로 활동한 장 콕토는 20세기 초의 ‘르네상스맨’이자 아방가르드 영화를 개척한 인물로 영화사에 남아있으며, 그가 감독한 첫 장편영화 <미녀와 야수>는 판타지를 현실로 구현한 명작으로 큰 성공을 거둔 바 있다. ‘장 콕토 3부작’을 만들 정도로 그의 예술세계를 숭배했던 필립 글래스는 <미녀와 야수>가 가진 예술 창작의 본질에 감명받아 1994년에 ‘필름 오페라’라는 형식으로 재탄생시켰고, 당시 오페라와 영화의 신선한 결합, 새로운 양식의 탄생이라 극찬 받으며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필립 글래스의 <미녀와 야수>는 원래의 소리를 완전히 없앤 장 콕토의 흑백영화가 무대 위에 상영되는 가운데, 4명의 성악가가 영화 속 캐릭터의 대사와 싱크가 되어 이야기하듯 노래를 하고, 9명의 필립 글래스 앙상블이 이야기의 흐름과 캐릭터들의 변화과정을 섬세하게 직조하듯 로맨틱 판타지를 이끌어 갈 예정이다.

디즈니 애니메이션, 영화, 뮤지컬 등으로 익숙한 동화를 아방가르드 시네마와 현대음악의 만남이라는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감상할 수 있는 필립 글래스의 <미녀와 야수>. 현대예술을 사랑하는 관객이라면 이 기념비적인 공연을 만날 수 있는 진귀한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자!

“극도로 영리한 작품, 시각적으로, 극적으로,  
음악적으로 보는 내내 놀라움을 준다!”  
더 스테이지, 영국



© Steve Tanner

CLASSICAL  
MUSIC  
THEATRE  
DANCE  
MUSICAL  
JAZZ

VIDEO  
CLIP

## 영국, 니하이 씨어터 뮤지컬 <데드 독>

Kneehigh with Liverpool Everyman & Playhouse ‘Dead Dog in a Suitcase (and other love songs)’

4.21 thu  
—24 sun

평일 8pm  
주말 2:30pm & 7:30pm

R 80,000  
S 60,000  
A 40,000

관람연령: 14세 이상

공연시간: 2시간 30분(휴식 포함)

\* 영어로 공연되며, 한국어 자막이 제공됩니다.

### 18세기 <거지 오페라>가 21세기 뮤지컬로 탄생하다!

영국의 가장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극단 중 하나인 니하이 씨어터가 드디어 첫 내한공연을 갖는다. 1980년 영국 콘월의 작은 시골 학교 교사가 마을의 농부, 간판도장공, 전기공, 지역 학생들, 마을 카페의 기타리스트들을 불러 모아 연극 워크숍을 열면서 시작한 이 극단은 곧 영국 전역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현재는 만드는 작품마다 흥행과 비평 모든 면에서 화제를 일으키며, 가는 곳마다 열성적인 관객을 몰고 다니는 영국의 대표 극단 중 하나로 성장했다.

라이브 음악을 바탕으로 모든 배우들이 노래와 연기, 춤, 악기연주까지 동시에 하는 ‘뮤직 씨어터’인 니하이 씨어터의 이번 작품 <데드 독>은 브레히트의 <서푼짜리 오페라>의 원작이기도 한 존 게이의 <거지 오페라(The Beggar’s Opera)>를 바탕으로 한다. 마을의 간교한 사업가 피침은 살인 청부업자 맥히스를 시켜 부패와 부정으로 억인 자신의 뒷거래를 파헤치려는 시장인 굿맨을 암살하도록 하는데, 맥히스는 굿맨 뿐 아니라 암살 장면을 목격했다는 이유로 굿맨의 애완견까지 죽인다. 그러나 피침의 사랑하는 외동딸 폴리가 맥히스와 사랑에 빠져 결혼을 하자 피침 부부는 맥히스를 밀고하는데...

니하이가 펼쳐낸 이 마법 같은 작품 안에는 웨스트엔드 뮤지컬을 능가하는 음악적 즐거움과 상상력 자극하는 기발한 무대 사용, 생동감 넘치는 배우들의 춤과 연기에 영국의 정통 인형극 펀치 앤 주디를 연상케 하는 인형들의 풍자까지 무엇 하나 빠질 것 없는 완벽한 즐거움이 들어있다. 18세기에 초연된 고전을 286년이 지난 오늘날의 감각으로 새롭게 각색한 니하이식 <거지 오페라>의 탄생에 영국 언론들은 “최고의 앙상블이 펼치는 최고의 작품”,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작품이 탄생했다”고 일제히 감탄했고, “단언컨대, 한번 보고 나면 꼭 다시 보게 될 작품이다. 아직 보지 않았다면 차라리 그게 낫다”라고 찬사를 보내기도 했다. 대중성과 예술성, 뮤지컬과 연극 애호가 모두를 사로잡는 니하이 씨어터의 매력적인 공연을 만끽해보자!

Kneehigh  
ON TOUR



Supported using public funding by  
ARTS COUNCIL  
ENGLAND





“오스터마이어와 입센의 완벽한 조합”

베를린 모르겐포스트, 독일

“개인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입센의  
드라마가 얼마나 힘이 센지 보여준 작품”

뉴욕 타임즈

CLASSICAL  
MUSIC  
THEATRE  
DANCE  
MUSICAL  
JAZZ



## 샤우뷔네 베를린 & 토마스 오스터마이어 연출 <민중의 적>

Schaubühne ‘An Enemy of the People’  
directed by Thomas Ostermeier

5.26 thu  
—28 sat

평일 8pm  
토 3pm

R 80,000  
S 60,000  
A 40,000

공연시간: 2시간 30분(휴식 없음)

\* 독일어로 공연되며, 한국어 자막이 제공됩니다.

“다수는 항상 옳은가?”

올해 당신의 지성을 깨우는 강렬한 작품

남편을 총으로 쏘아 죽이는 파격적인 결말로 화제를 모았던 <인형의 집-노라>, 카메라를 든 햄릿을 등장시켜 ‘고전의 재탄생’이라 극찬 받았던 <햄릿>, 이 두 작품으로 국내에 이미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는 독일 연출가, 토마스 오스터마이어(Thomas Ostermeier)가 오랜만에 한국을 찾는다.

독일 베를린 샤우뷔네 극장의 예술감독으로 17년째 고전과 현대극을 오가며 사회 비판적 메시지와 중산층의 위기를 담은, 논란과 화제의 작품들을 발표해 온 토마스 오스터마이어. 특히, 그는 입센, 셰익스피어 등 고전을 21세기 신세대의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하고, 스타일리쉬한 무대 디자인과 영상, 음악, 신체 언어를 과감히 사용하여 인터넷과 영화에 빠져 있는 젊은 세대를 극장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다는 평을 듣고 있다.

그가 이번에 샤우뷔네 배우들과 훌륭한 앙상블을 선보일 작품은 입센의 사회문제극 <민중의 적>으로 그는 작품의 배경을 19세기 노르웨이에서 21세기 베를린으로 옮겨 놓는다. 신문기자들과 인디 밴드 멤버로도 활동하고 있는 스톡홀름 박사는 온천 도시인 이 마을의 온천수가 오염된 사실을 알고 언론에 이를 폭로하려고 한다. 하지만, 시의원인 형은 관광도시로서 받게 될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우려한 나머지 이 불편한 진실을 숨길 것을 강요한다.

이 작품의 클라이맥스인 대중 연설 장면에서 스톡홀름 박사는 연설 장소를 극장으로 옮겨와 “이억을 위해 침묵하는 다수와 정의를 위해 소신을 말하는 소수, 당신은 어느 편에 서 있는가?”라고 관객에게 묻는다. 2012년 초연된 이 작품은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호주 등을 투어하며 관객과 배우들 사이에 열정적인 토론이 펼쳐져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고전을 뒤돌아 현대 사회의 위기를 날카롭게 파헤치는 이 작품을 보고 극장 문을 나서는 순간, 당신은 자문하게 될 것이다. “나는 과연 어느 편에 서 있는가!”



© Paolo Pellegrin



“타로의 골드베르크 변주곡은 그 신선한 해석과 진실된 음악성으로 인해 수없이 많은 골드베르크 변주곡 음반들 사이에서도 최우선적으로 꼽게 된다.”  
그라모폰

© Marco Borggreve

CLASSICAL  
MUSIC  
THEATRE  
DANCE  
MUSICAL  
JAZZ



## 알렉상드르 타로 ‘골드베르크 변주곡’

Alexandre Tharaud  
Bach’s ‘Goldberg Variations’

6.8 wed

8pm

R 80,000  
S 60,000  
A 40,000

공연시간: 80분(휴식 없음)

**프로그램:**  
J. S. 바흐 '골드베르크 변주곡' BWV 988

\* 상기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감각적인 터치로 빛어내는 바흐의 명곡

프랑스 첼리스트 장 기엔 케라스(Jean-Guihen Queyras)와의 2010년 듀엣 무대에서 다채로운 음색과 독특한 뉘앙스로 프랑스 음악의 진수를 여실히 보여줬던 알렉상드르 타로(Alexandre Tharaud)가 6년 만에 다시 LG아트센터 무대에 선다. 특색 있는 음반을 꾸준히 선보이며 매니아 팬층을 형성하고 있는 타로는 이번 무대에서 J. S. 바흐의 대표적인 건반악기 독주곡이자 타로 스스로 '에베레스트'라 부르는 '골드베르크 변주곡(Goldberg Variations, BWV 988)'을 연주한다. 알렉상드르 타로는 프랑스 피아니즘을 가장 이상적으로 구현하는 연주자로 잘 알려져 있지만, 그의 다채로운 디스코그래피를 살펴보면 바흐, 스키타라티, 라모, 쿠프랭 등 피아노로 연주한 바로크 레퍼토리 역시 하나의 큰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음반들은 바로크 음악에 대한 타로의 진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감각적이고 자유분방한 면모를 보여주기에 충분했기에 많은 팬들이 그의 '골드베르크 변주곡'을 기다려왔다. 처음과 마지막 아리아 사이에 견고하게 구축된 30개의 변주 속에서 건반악기의 다양한 기교와 함께 삶의 희로애락을 망라하여 느낄 수 있는 명곡인 골드베르크 변주곡은 수많은 건반악기 연주자들이 도전하고 있는 곡으로, 타로 역시 가장 아끼고 좋아하는 음악으로 이 곡을 꼽은 바 있다. "모든 작곡가들의 아버지인 바흐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타로는 9개월간 가진 안식기 동안 오로지 '골드베르크 변주곡'만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탐구하면서 음 하나하나, 마디 하나하나의 해석에 공을 들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2015년 가을 발매된 그의 '골드베르크 변주곡'(Erato)은 신선한 아이디어와 생동감 넘치는 호연(好演)으로 탄생하여 평단과 애호가들의 기대를 한껏 충족시켜주고 있다. 아마도 건반악기 독주곡 가운데 가장 긴 연주시간과 완벽한 형식을 담고 있는 '골드베르크 변주곡' 이제 남다른 색채와 터치, 재기 넘치는 아이디어로 가득한 알렉상드르 타로가 80분간 피아노로 들려주는 바흐의 역작을 만날 시간이다.





“황홀한 무대 세트와 의상,  
흥미진진한 드라마”  
선데이 타임즈, 영국

“매튜 본은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안무가!”  
타임

CLASSICAL  
MUSIC  
THEATRE  
DANCE  
MUSICAL  
JAZZ

VIDEO  
CLIP 

6.22 wed  
—7.3 sun

화-금 8pm \*23(목) 3pm & 8pm  
주말 2:30pm & 7:30pm

VIP 130,000  
R 100,000  
S 80,000  
A 60,000  
B 40,000

공연시간: 2시간 10분(휴식 포함)

© Johan Persson

## 매튜 본의 댄스 뮤지컬 〈잠자는 숲속의 미녀〉

Matthew Bourne's 'Sleeping Beauty'  
A Gothic Romance, Music by Tchaikovsky

매튜 본 작품사상 최단 시간 매진 기록을 세운 흥행대작!

역시 매튜 본은 달랐다! 지금껏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독특한 스타일의 <잠자는 숲속의 미녀>는 2012년 영국 새들러스 웰스 극장 초연 시, 공연이 시작되기도 전에 8주 공연이 전석 매진되는 대기록을 세웠으며 연이은 뉴욕 공연에서도 흥행돌풍을 일으켰다. 정통 발레에 파격을 가하는 '무용계의 이단아'에서 이제는 그 이름만으로도 믿고 보는 세계적인 브랜드가 된 영국 안무가 겸 연출가 매튜 본, 그의 신작 <잠자는 숲속의 미녀>가 드디어 한국에 상륙한다.

동화책 속에서 방금 튀어 나온 듯한 화려한 무대 세트와 의상, 고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스토리텔링, 차이코프스키의 음악과 매튜 본 안무의 절묘한 결합은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매튜 본 최고의 작품"(뉴욕 타임즈)이란 극찬을 이끌어냈다. 풍부한 상상력으로 전세계 관객들을 매료시켜 온 그는 이번에도 훌륭한 스토리텔러로서의 그의 능력을 다시 한번 입증한다. 천방지축 오로라 공주와 그녀를 유혹하는 마녀의 아들, 공주를 사랑하는 청년, 그리고 공주의 사랑을 도와주기 위해 뱀파이어로 변신하는 요정들의 왕, 100년 동안 잠들어 있던 공주가 2011년 현대에 깨어난다는 설정까지, 매튜 본은 이 차이코프스키 명작 발레를 로맨틱한 댄스 뮤지컬로 재탄생시켰다. 여기에 토니상과 올리비에상 수상에 빛나는 레즈 브로더스톤(Lez Brotherston)의 눈부시게 화려한 무대와 의상 디자인이 더해져 눈이 휘둥그레지는 황홀함을 안겨준다. 근육질 남성 백조를 등장시켜 화제가 된 <백조의 호수>에 열광했던 관객은 물론, 뮤지컬과 공연애호가라면 올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must-see' 작품이다!



NEW/ADVENTURES

Supported using public funding by  
ARTS COUNCIL  
ENGLAND  
LOTTERY FUNDED



“영리하고 도발적인 조합!”

이브닝 스탠다드, 영국

“이 햄릿은 무조건 봐야 한다.”

몬트리올 가제트

© Martin Tulinus

CLASSICAL  
MUSIC  
THEATRE  
DANCE  
MUSICAL  
JAZZ

## 타이거 릴리스 & 덴마크 리퍼블릭 씨어터 음악극 <햄릿>

‘The Tiger Lillies Perform Hamlet’  
by Republique

10.12 wed  
-14 fri

8pm

R 80,000

S 60,000

A 40,000

공연시간: 2시간 30분(휴식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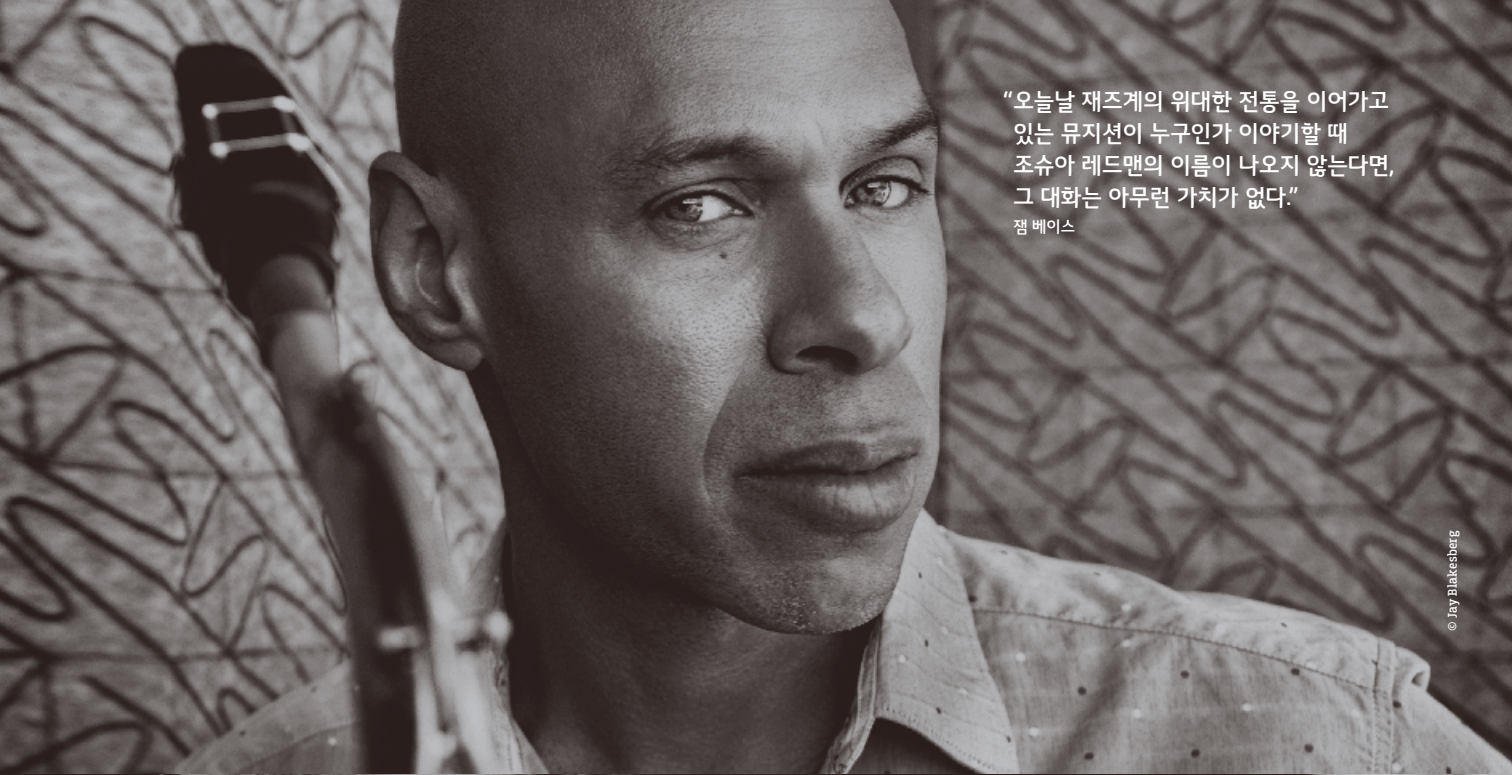
\* 영어로 공연되며, 한국어 자막이 제공됩니다.

만약 지금까지 너무 많은 햄릿을 보았거나,  
아직 특별한 햄릿을 만나지 못했다면,  
여기 새로운 <햄릿>이 있다!

1601년 탄생해서 지금까지 세계인이 가장 사랑하는 희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공연되는 셰익스피어 최고의 걸작 <햄릿>. 더 이상 새로운 <햄릿>이 있을까 생각하는 관객에게 타이거 릴리스(Tiger Lillies)의 <햄릿>을 추천한다. 영국의 컬트 밴드 타이거 릴리스가 덴마크의 리퍼블릭 씨어터와 만나 전통적인 햄릿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풀어낸 음악극 <햄릿>은 음악적으로 풍부하고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이미지를 통해 새로운 <햄릿>을 만들어냈다. 한번 들으면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독특한 보이스를 가진 타이거 릴리스의 보컬 마틴 자크는 21개의 장면에 노래와 내레이션을 입혀 극을 이끌어 가는데, 마틴의 노래는 셰익스피어의 매혹적인 대사와 어우러져 그 어떤 <햄릿>보다도 시적이면서도 동시에 비극적인 햄릿을 창조해 낸다. 이 서정적이면서도 몽환적인 작품은 덴마크 리퍼블릭 씨어터의 예술감독이자 연출가인 마틴 툴리니우스(Martin Tulinus)의 의도처럼 시각적, 음악적 이미지를 통해 <햄릿>을 언어가 아닌 마음으로 공감하게 만든다. 또한 음악뿐 아니라 아크로바틱, 인형극 등 여러 연극적인 요소는 <햄릿>의 비극성을 더욱 강렬하게 부각시키는데, 그 중에서도 오페라의 죽음을 다룬 장면은 “그 어떤 햄릿보다도 가장 아름답게 그려졌다”(폴란드 Teatralny)는 찬사를 받기도 했다. 2013년 LG아트센터에서 공연한 멀티미디어 음악극 <늪은 뱃사람의 노래>를 통해 한국 관객들에게 처음 소개되었던 영국의 컬트 밴드 타이거 릴리스는 “천사와 같은 목소리로 영국 현대인의 밑바닥의 삶을 노래한다”는 평을 듣고 있는 밴드로 영국뿐 아니라 유럽 전역을 무대로 뮤지컬, 음악극, 카바레 콘서트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다. 2002년에는 컬트 뮤지컬 <쇼크헤드 피터>로 올리비아상 ‘베스트 엔터테인먼트’와 엔터테인먼트/뮤지컬 부문 ‘베스트 조연상(마틴 자크)’을 수상했는데, 이 작품은 미국 브로드웨이 버전으로도 만들어져 큰 성공을 거둔 바 있다. 눈과 귀와 마음을 모두 매혹시킬 음악극 <햄릿>, 셰익스피어 서거 400주년을 맞아 영국의 밴드 타이거 릴리스와 덴마크 극단 리퍼블릭가 함께 선사할 이 특별한 만남을 기대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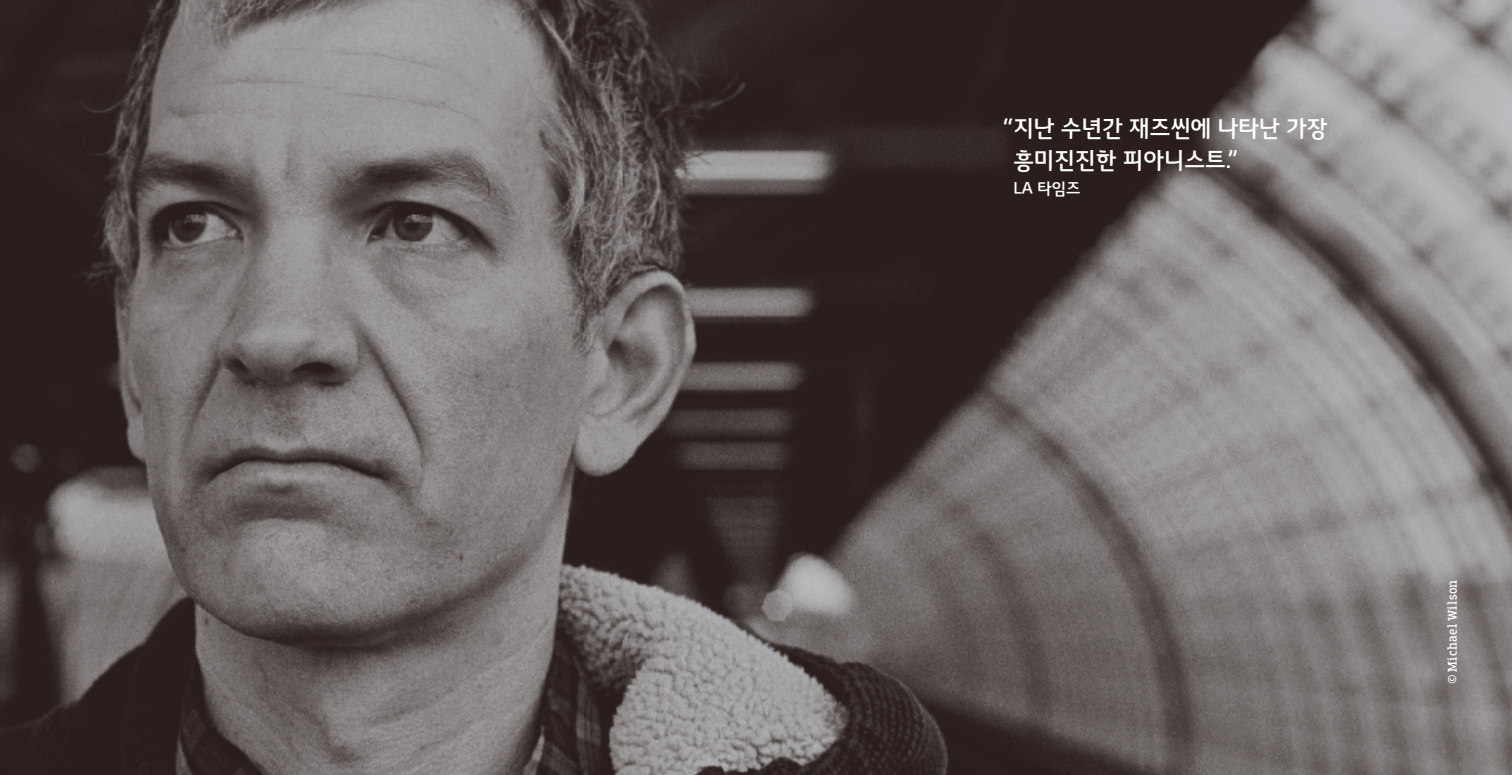


© Miklos Szabo



“오늘날 재즈계의 위대한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뮤지션이 누구인가 이야기할 때 조슈아 레드맨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대화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잼 베이스

© Jay Blakesberg



“지난 수년간 재즈씬에 나타난 가장 흥미진진한 피아니스트.”  
 LA 타임즈

© Michael Wilson

CLASSICAL  
 MUSIC  
 THEATRE  
 DANCE  
 MUSICAL  
 JAZZ

## 조슈아 레드맨 & 브래드 멜다우 듀오

Joshua Redman & Brad Mehldau Duo

10.15 sat

현대 재즈 음악의 두 아이콘을 한 무대에서 만난다!

90년대 '영 라이언'으로 불리며 데뷔한 이래 20년간 눈부신 성과를 쌓아 올리며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재즈 거장으로 우뚝 선 색소포니스트 조슈아 레드맨(Joshua Redman)과 피아니스트 브래드 멜다우(Brad Mehldau). 절친한 음악적 동료이기도 한 두 천재 뮤지션을 한 무대에서 만나는 진귀한 기회가 찾아온다.

둘의 인연은 199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91년 델로니어스 몽크 컴퍼티션에서 수상하며 화려하게 등장한 조슈아 레드맨은 93년 '조슈아 레드맨 콰르텟'을 결성하였는데, 당시 23세였던 브래드 멜다우가 베이스리스트 크리스티안 맥브라이드(Christian McBride), 드러머 브라이언 블레이드(Brian Blade) 등과 함께 이 콰르텟에서 활동했다. 이후 자신의 트리오를 결성한 멜다우는 <The Art of Trio Vol. 1-5>, <Elegiac Cycle>(solo) 등의 앨범을 발표하며 '재즈 트리오 미학의 정점', '키스 자렛(Keith Jarrett) 이후 가장 독창적인 연주'라는 평을 받으며 전세계적인 인기를 구가한다. 초창기 정통 재즈 스타일의 연주를 선보이던 조슈아 레드맨은 <Elastic>(2002), <Momentum>(2005) 앨범을 통해 펑크, 록, 힙합, R&B 등의 요소를 가미하는 등 과감하고 진보적인 시도를 선보이며, '재즈 역사에 새로운 지평을 연 뮤지션'으로 평가 받고 있다. 데뷔 이래 지속적으로 음악적 교류를 나눴던 두 뮤지션은 이번 콘서트에서도 서로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바탕으로 눈부신 즉흥 연주와 창의적인 앙상블을 선보일 예정이다. 재즈 팬은 물론 음악 애호가라면 이 황홀한 귀의 호사(豪奢)를 누리는 순간을 기대해보자.

7pm

R 100,000  
 S 80,000  
 A 60,000  
 B 40,000



<여기가 집이다>



<여기가 집이다>



<햇빛 샤워>



<햇빛 샤워>



<미국 아버지>



<환도열차>

CLASSICAL  
MUSIC  
THEATRE  
DANCE  
MUSICAL  
JAZZ

## 장우재 연출 신작

New Creation directed by JANG Woo-jae

10.26 wed  
-11.6 sun

화-금 8pm  
토 3pm  
일 5pm

R 50,000  
S 40,000  
A 30,000

제작: LG아트센터

\* 작품명 및 작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추후 공지 예정이며, 아티스트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감각적인 필력과 예리한 시선을 지닌 차세대 연출가

LG아트센터는 세계적인 예술 거장들 그리고 신진 아티스트들의 우수한 공연을 소개함과 동시에 한국 아티스트들과 협업을 통해 우수한 국내 레퍼토리 개발에 힘쓰고 있다. 그간 김광보 연출의 <사회의 기동들>, 양정웅 연출의 <페르 귄트>, 서재형 연출의 <더 코러스; 오이디푸스>, 이자람의 <역척가> 등 실력 있는 국내 예술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작품을 제작하였고, 이중 많은 작품들이 한국을 넘어 세계 관객들과 만나고 있다. 그리고 2016년 LG아트센터를 통해 만날 아티스트는 한국 연극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작가 겸 연출가 장우재다.

2015년 '차범석 희곡상', '김상열 연극상'과 2014년 '동아연극상' 희곡상, 2013년 '대한민국연극대상' 대상과 희곡상을 수상하는 등 최근 굵직한 연극상을 모두 휩쓸고 있는 작가 겸 연출가 장우재. <여기가 집이다>, <환도열차>, <햇빛샤워> 등을 통해 감각적인 필력과 인간에 대한 예리한 시선으로 한국 연극계의 대표 주자로 우뚝 선 장우재가 공개할 신작은 조선시대 문인 성현(成愼)이 쓴 관동만유(關東漫遊)에서 모티브를 가지고 온 작품.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문인인 경숙과 기지, 그리고 무사 회용, 이 세 사람이 임금의 폭정을 피해 금강산으로 여행을 떠나며 마주하게 되는 사람들을 통해 인생의 깨달음을 담고 있다.

살면서 만나게 되는 온갖 고난과 굶은 일도 그저 웃으며 포용하고 넘겼던 선인들의 여유와 지혜를 통해 각박한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이 고단한 심신을 위로 받을 수 있는 작품이 될 장우재 연출의 신작을 통해 특유의 날카롭고 섬세한 연출력이 LG아트센터에서 어떻게 구현될 지 기대해보자.



© auditorium/김태욱



© Laurent Philippe

CLASSICAL  
MUSIC  
THEATRE  
DANCE  
MUSICAL  
JAZZ



## 필립 드쿠플레의 프렌치 카바레 〈콘택트〉

‘Contact’ by Compagnie DCA  
Philippe Decouflé

11.11 fri  
—13 sun

금 8pm  
토 7pm  
일 3pm

R 80,000  
S 60,000  
A 40,000

공연시간: 100분(휴식 없음)

\* 불어로 공연되는 장면이 일부 있으며, 한국어 자막이 제공됩니다.

발칙한 상상력으로 해피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필립 드쿠플레의 원더랜드를 경험하라!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올림픽 개막식으로 손꼽히는 1992년 알베르빌 동계올림픽의 감독이자, 태양의 서커스 <Iris>의 연출가, 파리의 관광명소 ‘크레이지 호스’의 카바레 쇼 연출가로 잘 알려진 프랑스의 대표 연출가 겸 안무가 필립 드쿠플레. 그가 2014년 LG아트센터에서 <파노라마>로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뜨거운 호응을 얻은 데 이어 최근작 <콘택트(Contact)>로 돌아온다. 드쿠플레는 뮤지컬 <파우스트>를 제작하는 과정을 기본 플롯으로 하여 인종, 나이, 체격, 개성이 모두 다른 뮤지션, 무용수, 코미디언 등 16명을 출연시켜 기상천외한 쇼를 선보인다. 여기에 영화, 서커스, 고전 뮤지컬, 라이브 음악, 그림자극, 발리우드(Bollywood)의 요소들을 뒤섞어 화려한 ‘드쿠플러리(decoufliers: 드쿠플레 방식의)’ 카바레 쇼를 완성하였다. 특히, 여러 편의 단편영화와 광고 등의 제작을 통해 그간 축적해 왔던 그의 영화적 기량이 집약된 영상효과와 출연자들의 라이브 공연이 빛어내는 시각적 일루전이 일품이다. 특히 이번 공연은 2009년 세상을 뜬 피나 바우쉬에 대한 그의 존경과 사랑을 담은 작품이기도 하여, 작품 중간에 그녀의 대표작 중 하나인 <콘택트호프(Kontakthof)>에 대한 오마주가 들어간 장면도 나온다.



© E. Rus

안무가, 연출가, 마임리스트, 광고제작자, 이벤트 기획자 등 다방면에서 활동하며 모방이 불가능한 독창성과 기발한 창조성을 발현해 온 그의 유쾌한 상상력은 <콘택트>에서도 100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를 만큼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파노라마>가 변화무쌍한 드쿠플레 스타일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기초편’이었다면, <콘택트>는 그의 작품 세계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심화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전세계를 투어하며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필립 드쿠플레 작품 속에 녹아있는 독특한 프랑스적 감수성에 취해보자.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www.annee-francecoree.com](http://www.annee-francecoree.com)





CLASSICAL  
MUSIC  
THEATRE  
DANCE  
MUSICAL  
JAZZ



## 타펠무지크 바로크 오케스트라 '창작의 세계'

Tafelmusik Baroque Orchestra  
'The Circle of Creation'

11.20 sun

바흐 명곡의 산실, 18세기 라이프치히를 가다!

7pm

R 80,000  
S 60,000  
A 40,000

공연시간: 105분(휴식 포함)

서양음악에서 가장 위대한 유산을 남긴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 그의 65년 인생 가운데 교회음악 작곡가로, 연주자로 그리고 교육자로 가장 바쁜 삶을 살며 27년간이나 예술창작의 고향이 되어준 독일의 라이프치히. 바흐에게 음악적 영감이 떠오른 그 순간부터 당시 관객들이 그의 음악을 듣게 되기까지 어떤 장인들의 손길이 더해져 이 주옥 같은 음악들이 세상의 빛을 보게 된 것일까? 그리스 신화와 천문학 그리고 17세기 음악을 한데 엮은 <갈릴레오 프로젝트>(2009)를 시작으로 시대악기 연주와 테크놀로지를 결합한 멀티미디어 그리고 흥미로운 스토리텔링까지 3박자를 갖춘 콘서트로 탁월한 명성을 얻은 캐나다의 타펠무지크 바로크 오케스트라(Tafelmusik Baroque Orchestra)가 이번에는 바흐의 음악 고향이자 18세기 공예와 무역의 중심 도시인 라이프치히를 중심으로 바흐의 음악을 이야기한다. 타펠무지크는 주특기인 무대와 객석을 오가는 암보 연주와 고화질의 비주얼 이미지, 그리고 배우의 유익하고 친절한 내레이션을 응집력 있게 결합시켜 자신들의 이상인 J. S. 바흐의 흥미진진한 창작세계(circle of creation)를 들여다 볼 예정이다. 타펠무지크는 '창작의 세계(The Circle of Creation)'라는 제목으로 바흐의 천재성이 발휘되는데 물질적 바탕이 되어준 라이프치히의 다양한 장인들의 면모를 살핀다. 관현악 모음곡,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등 바흐의 주옥 같은 기악곡이 연주되는 가운데, 당시 어떻게 종이만 만들어져 바흐 손에 쥐어졌으며 그는 어떻게 잉크를 만들어 오선지 위에 작곡의 자취를 남기기 시작했는지, 또한 양의 창자(gut)로부터 현악기의 현이 나오기까지, 하프시코드의 내부 작동, 현악기 몸체가 되는 나무의 선택, 공연장이 되어준 커피하우스, 더불어 악기 제작비 총당과 당시 연주자들의 봉급에 관한 이야기 등 음악과 관련된 18세기 라이프치히의 경제생활까지 다양한 비주얼 이미지에 내레이션이 더해져 명곡 탄생의 백그라운드를 한 눈에 발견할 수 있다. 알고 들으면 더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는 바로크 시대 음악 '창작의 세계'를 통해 서양음악사의 가장 중요한 인물인 J. S. 바흐의 작업 세계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건반 위에 놓인 에마르의 손에는 신이  
인도하심이 분명하다. 이보다 더 뛰어난  
메시앙 탄생 100주년 찬사가 존재한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일 것이다”  
그라모폰



© Marco Borggreve

CLASSICAL  
MUSIC  
THEATRE  
DANCE  
MUSICAL  
JAZZ



## 피에르 로랑 에마르 '쿠르탁 & 메시앙'

Pierre-Laurent Aimard  
'Kurtág & Messiaen'

11.24 thu

### 현대음악 스페셜리스트가 들려주는 '쿠르탁 & 메시앙'

8pm

R 80,000  
S 60,000  
A 40,000

**프로그램:**  
1부 - 스베일링크, 쿠르탁 'Játékok(게임)', 슈만  
2부 - 다캥, 메시앙 <새의 카탈로그>, 쇼팽

\* 상기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12년 첫 내한에서 놀라운 기교와 명쾌한 해석으로 어렵게만 여겨져왔던 현대음악의 진정한 가치를 확인시켜주며 관객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던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피아니스트 피에르 로랑 에마르(Pierre-Laurent Aimard)가 4년 만에 돌아온다. 이번 무대에서는 에마르 피아니즘에서 떨러야 떨 수 없는 두 작곡가, 쿠르탁과 메시앙을 중심으로 시대와 양식을 꿰뚫는 독특하고 진귀한 프로그램을 펼쳐낸다.

1부는 2016년 탄생 90주년을 맞는 헝가리 출신 작곡가 쿠르탁(György Kurtág, 1926-)을 중심으로 꾸며진다. 바르토크의 계보를 잇는 쿠르탁은 매우 짧은 곡에서도 강렬한 표현을 드러내며 독창적인 음악을 쓰는 우리시대 가장 영향력 있는 현대 작곡가 중 한 명이다. "쿠르탁의 음악에는 민기 어려운 엄청난 무언가가 있다"고 말하는 에마르 역시 쿠르탁의 깊이 있는 음악적 메시지에 심취해 헝가리로 날아가 직접 작곡을 배울 정도로 큰 애착을 갖고 있다. 에마르는 쿠르탁과 더불어 초기 바로크 시대 건반악기 음악의 대부격인 스베일링크(Jan Pieterzoon Sweelinck, 1562-1621)와 슈만(Robert Schumann, 1810-1856)을 통해 친구(新舊)의 연결과 대비가 돋보이는 연주를 들려줄 예정이다.

또한 2부에서는 에마르가 자신의 이상향이라 칭했던 메시앙(Olivier Messiaen, 1908-1992)을 중심축으로 하여 다시 한번 시대를 넘나든다. 메시앙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그의 애제자가 된 후 독보적인 메시앙 해석자로 명성이 높은 에마르가 선택한 프로그램은 메시앙의 1950년대 역작인 <새의 카탈로그(Catalogue d'oiseaux)>다. '새소리는 신이 만든 음악'이라 믿으며 세계 각지에서 채집한 새소리를 완벽히 기보한 메시앙의 이 대표작 앞뒤로는 새를 주제로 한 다캥(Louis-Claude Daquin, 1694-1772)의 클라브생 모음곡과 밤을 주제로 한 쇼팽(Frédéric Chopin, 1810-1849)의 녹턴을 연결시키며, 시대는 다르지만 음악적 맥락과 주제를 관통하는 인상적인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오로지 피에르 로랑 에마르만이 펼쳐낼 수 있는 친구의 조화와 대비. 듣는 이의 감상 지평까지 넓히는 그의 경이로운 피아니즘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 창조적인 아티스트들을 위한 새로운 경연 댄스 엘라지 Danse Élargie

서울 대회  
2016년 6월 11-12일  
LG아트센터

파리 대회  
2016년 6월 18-19일  
떼아트르 드 라 빌

musée de  
la danse

LG Arts Center

Théâtre  
de la  
Ville  
PARIS



내일의 거장을 발견하는 자리에  
관객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오늘날 세계 무대에서 많은 관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아티스트들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지금에 위치에 이르게 된 것일까? 그들의 남다른 아이디어는 어떻게 발견되어 인정을 받았으며, 어떻게 무대 위에서 빛나는 작품으로 탄생되게 된 것일까?



예술을 사랑하는 관객이라면 무대 이면에 감춰져 있는 아티스트들의 열정적인 노력과 치열한 창조의 과정들에 대해 한번쯤은 궁금해했던 적이 있을 것이다. 여기 미래를 꿈꾸며 오늘을 살아가는 아티스트들의 뜨거운 순간들을 관객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2016년 6월에 열리는 댄스 엘라지(Danse Élargie)는 LG아트센터가 프랑스의 명성 높은 공연장인 파리의 떼아트르 드 라 빌(Théâtre de la Ville - Paris), 렌의 뮤제 드 라 당스(Musée de la danse - Rennes)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새로운 개념의 무용대회로 이들에 거친 예선과 본선의 무대를 관객들과 함께한다.

2010년에 시작되어 격년으로 열리는 댄스 엘라지는 나이나 국적, 분야(무용, 연극, 음악, 시각 예술, 건축 등)에 상관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아티스트라면 누구나 참여해서 창의력을 겨룰 수 있는 열린 개념의 무용 대회이다. 대회의 취지와 위상에 걸맞게 심사위원 역시 무용, 연극, 음악, 미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2016년에는 특별히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아시아 및 폭넓은 지역에서 참가를 장려하기 위해 LG아트센터와 손잡고 서울과 파리 2개 도시에서 개최한다. 이 대회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창조적인 아이디어의 작품과 새로운 가능성을 지닌 아티스트를 발견하는 과정을 직접 지켜보고 이들의 미래를 응원해 줄 관객들의 참여이다. LG아트센터 무대에서 새로운 아티스트가 탄생하는 순간을 마주하고픈 관객들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관객 심사위원 위촉과 관람 신청에 관한 사항은 LG아트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 Focus on French Arts

LG아트센터는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이하여 프랑스의 다채로운 공연예술을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아하고 완벽한 예술적 기교, 다른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관용, 경계를 뛰어넘는 혁신으로 상징되는 프랑스의 예술이 지닌 다양하고도 역동적인 면모를 새롭게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댄스 엘라지 2016

필립 드쿠플레의 프렌치 카바레 <콘택트>



알렉상드르 타로

피에르 로랑 에마르

PARTNER ORGANISATION





## LG아트센터의 '관객참여프로그램'

# LAMP LG Arts Center Meets People

LG아트센터는 활발한 창작 활동을 펼치고 있는 국내외 정상급 아티스트의 예술 세계와 창의력을 관객과 공유하는 관객참여프로그램 LAMP(LG Arts Center Meets People)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LG아트센터가 엄선한 기획공연 CoMPAS와 함께 진행되고 있는 LAMP는 아티스트의 창작 과정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거나, 직접 체험해보는 워크숍 그리고 공연에 대한 이해를 돕는 강연 등 다양한 형태로 관객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2016년에도 LAMP는 관객 여러분께 예술을 통한 다양한 자극과 경험의 시간을 선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객 여러분의 꾸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키스 앤 크라이> 관객과의 대화, 2014



'3분 연출력의 비밀' 니나가와 유키오를 만나다, 2014



로사스와 함께 무용 워크숍 '로사스 댄스 로사스'를!, 2015



안무가 린 화이민을 만나다, 2015

## LG아트센터 회원이 되면 좋은 점!



예매 수수료가 없다!

LG아트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예매하면, 티켓 예매 수수료가 전혀 없습니다.

예매에서 취소, 좌석 변경까지 편리하다!

LG아트센터 회원이 되시면,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티켓의 예매/취소/변경을 편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비, 연회비 없고, 실속은 아트포인트로!

기획공연 티켓 예매 시 구매 가격의 5%에 해당하는 아트포인트를 적립해 드립니다. (10% 초과 할인 구매 시 포인트 적립 불가)  
아트포인트는 기획공연 티켓 할인 및 주차우대권 교환, 프로그램북 교환 등 원하시는 서비스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티스트와 공연에 대한 고급 정보를 뉴스레터로!

LG아트센터가 전해드리는 소식을 제일 먼저 받아보세요. 기획공연에서 만나게 될 아티스트와 공연에 대한 심층 정보가 담긴 Azine(에이진)을 읽으시면, 관극의 깊이와 기쁨이 커집니다.

## 제휴 레스토랑 할인 안내

LG아트센터 당일 입장권 또는  
예매 확인서를 소지하시고 해당 레스토랑을  
방문하시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드립니다.  
(타 쿠폰 및 할인 카드와 중복 사용 불가)

레스토랑 영업 시간과 제휴 혜택은 각 업장의  
사정에 따라 사전 고지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CAFÉ

패키지 카드 제시 시  
LG아트센터 메인 로비 카페 10% 할인

### > ASIAN

**싱카이 (중식당)**  
02-2005-1003-4  
11:30-14:30 / 17:30-21:00  
식사 금액 10% 할인

### > WESTERN

**지아니스 나폴리**  
(이탈리안 비스트로 & 화덕 피자)  
02-566-0501  
11:30-22:30  
지아니스 시저 샐러드 제공

### > BUFFET

**머큐어 엠베서더 강남 쏘도베**  
(호텔 뷔페 레스토랑)  
02-2050-6034  
11:30-14:30  
뷔페 10% 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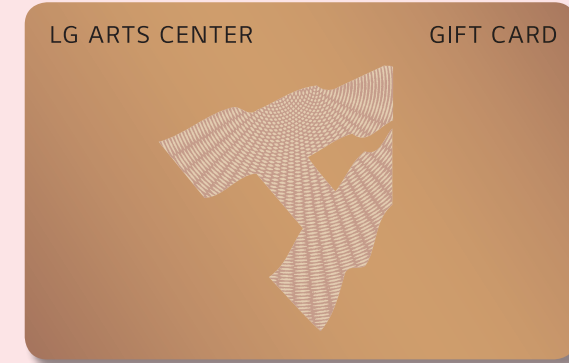
**강가 (인도식 커리)**  
02-2005-0610  
11:30-15:00 / 17:30-22:00  
세트 메뉴 10% 할인 (티켓 1매당 1세트)

**보나베띠 (이탈리안 레스토랑 & 와인 바)**  
02-569-8253  
11:30-23:00 (일요일 휴무)  
\*일주일 이내 입장권 또는 예매 확인서  
소지 시 평일 10%, 토요일 20% 할인

**더 피크닉 (브런치 / 오믈렛 / 샐러드)**  
02-553-7942  
10:00-21:00 (토요일은 17시까지,  
일요일 휴무)  
식사 금액 10% 할인



## LG아트센터의 독창적인 예술 경험을 선물하세요! LG아트센터 기프트 카드



본 카드는 LG아트센터 기획공연(CoMPAS) 예매 시  
사용할 수 있는 기프트 카드입니다.

종류: 10만원 / 20만원 / 30만원권

오직 LG아트센터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감동,  
LG아트센터 기획공연의 가치를 선물하세요.

### 사용 안내

- LG아트센터 홈페이지  
(www.lgart.com) 회원가입 후  
인증번호 등록 절차를 거쳐 사용이  
가능합니다.
- LG아트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화 예매  
시 사용 가능합니다.  
(단, 모바일 및 타 예매처 사용 불가)

### 사용 방법

-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기프트 카드 뒷면의 인증번호 인증  
(최초 1회)
- 관람을 원하는 기획공연 선택 후,  
“결제수단 선택” 단계에서  
“예매권/쿠폰/상품권” 탭 선택하여 결제
- 유효기간은 카드 뒷면에 명시되어  
있으며, 유효기간 만료 후에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미사용 금액은 소멸됩니다.

### 구매 및 사용 문의

LG아트센터 매표소  
02-2005-0114  
(오프라인으로만 구매 가능하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